

자료제공 : 2019. 08. 05.(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담당부서: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

체육진흥과장

조성호

2133-2730

여가스포츠팀장

김동준

2133-2746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담당자

옥혜경

2133-2747

## 서울시 「2019 서울달리기대회」 협찬사에서 일본브랜드 제외

- 현재 엄중한 상황 속 공동주최사와 대책 논의, 시민정서·의견 수용해 결정
- 협찬사인 한국미즈노 등 일본 브랜드 제외, 기념티셔츠는 국내 생산업체 통해 제작·제공

- 서울시가 10월13일(일) 개최 예정인 「2019 서울달리기대회」와 관련해 공동주최사인 동아일보사와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한국미즈노 등 일본 브랜드를 대회 협찬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더해 ‘백색국가’(화이트리스트) 명단 제외가 공식 발표되는 등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시민정서를 고려하고 대회 참가 신청자들의 협찬사 변경 요구를 수용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.
- 당초 「2019 서울달리기대회」 행사기획과 협찬사 선정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이전인 올초 확정됐다. 이후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

조치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협찬사(우리은행, 한국미즈노 등) 중 일본 브랜드의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자들의 요청이 증폭되어 왔다.

○ 「서울달리기대회」는 서울 도심과 한강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로, 서울시와 동아일보가 2005년부터 공동 주최하고 있다.

□ 이에 「2019 서울달리기대회」는 또 다른 공동 협찬사인 우리은행 등의 협찬으로 진행된다. 한국미즈노에서 제공 예정이었던 대회 기념 티셔츠는 국내 생산업체를 통해 당초 계획된 티셔츠와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국내산 원단을 소재로 제작·제공될 예정이다.

□ 서울시와 동아일보는 협찬사 변경에 따른 기념품 변경사항을 대회 홈페이지([www.seoul-race.co.kr](http://www.seoul-race.co.kr))에 공지하고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를 통보하는 등 참가자 및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발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기념품 변경에 따라 행사참여를 원치 않는 신청자에게는 9.13일까지 환불 신청 시 전액 환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. '2019 서울달리기대회 사무국'(☎02-361-1425~7)으로 전화신청하면 된다.

□ 한편, 「2019 서울달리기대회」 신청은 오는 9월20일(금)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.

- 조성호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“서울달리기대회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행사로,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최사인 동아일보사와 함께 협찬사 변경을 결정했다.”며 “시민들이 참여해 서울도심과 한강의 매력을 만끽하며 즐겁게 뛸 수 있도록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”고 말했다.